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보마케팅실

홍수가 나면 가장 절실한 것이 식수라고 한다. 물이 넘쳐 난민데, 정작 제일 부족한 것도 물이라는 예가다.

지금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는 매일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찾아내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오히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찾기란 데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은 과학기술자들도 마찬가지. 정보의 양과 질이 기술개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즘, 그들의 전공과 연구과제에 딱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전달해주는 것은 첨단 기술개발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열어가는데도 기여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정보마케팅실'의 존재 이유다.

글·사진 _ 대외협력과

《우리 실은 또...》

마케팅실 사람들은 스스로를 KISTI의 얼굴이라고 단언한다. 그만큼 얼굴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 물론, 실원을 얼굴을 한 명씩 들여다보면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을 '얼굴'이라 말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몸의 상대나 기분이 전제적으로 나타나는 곳, 또 타인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 얼굴이듯, 연구원들이 이뤄낸 실적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보마케팅실'이라는 뜻이다.

정보마케팅실 ... 처음 이 실 이름을 듣는 사람은 고개를 갸웃하게 마련이다. 마케팅에 사람을 거는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출연(연)에서 뭘 마케팅?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보통의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우리 연구원은 정부출연(연)으로서의 처음으로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 KISTI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KISTI의 얼굴”

정보마케팅엔지니어를 꿈꾸며!!

그렇다면 어떻게 수요자 중심 체제를 이뤄낼까?

정보마케팅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정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쌍방향 교류**다. 정보를 제공한 다음 뒷길 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만족도와 정보 이용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전달해 정족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새롭게 개발된 서비스체제를 이용해 다시 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급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쌍방향 교류**를 통해 수요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서비스 한다는 것이다.

또, 수요자가 KISTI를 찾기 이전에, KISTI가 먼저 수요자의 전공과 연구 과제를 분석해 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맞춤 서비스체제** 또한 갖추었다.

구체적으로, 대내·외 정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보서비스 신상품 개발,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 BI 체제와 상시 모니터링 체제 확립, 선진 마케팅 기법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자의 90% 이상이 KISTI의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고, 또 높은 만족도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정보마케팅실의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마케팅실 사람들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팅엔지니어'가 되기를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다. 마케팅은 물론 데이터 분석과 DB엔지니어의 역할까지 일인 삼역을 해낼 수 있는 마케팅엔지니어들, 그들의 손에 KISTI의 내일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가장된 표현일까?

우리 실사라드들 은요...

글_ 이수연 | 정보매개팅실 연구원 | kkami97@kisti.re.kr

정보매개팅실을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 '만나서실', 무슨 도시실이라고? 물론 아니다.
만나서 반갑고, 나누어서 기쁘고, 서로 잘 되어서 즐거운 실이
맞았을거다. 그만큼 영글한 때도 기분 좋아지고, 영도 잘 풀린다는 말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끘록 기뻐하면서 놓여지는 것일까?



유영복실장



유현총



김항국



박종명

1 일평 '피구왕 통기' 실장님. 한때 나는 세도 떨어뜨릴 만큼 퇴위를 한 핸드볼 실력의 소유자였다는 소문(?)이 무성한 우리 실장님은, 체육대학의 강사다. 그러나 겸손영 맑은한 웃치림과,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 그리고 강의를 서늘케 하는 예민함을 깃루 날려드루 리더. 요즘엔 통통미 커링 전학 세우사라, 연구원장코학안수시업 회사라 장신업이 이쁘사서 열중보기도 함들다.

2 미소 짓는 표정이 잔잔한 바다처럼 경쾌로운 분이시다. 사정함영을 하면 남영 사랑하는 사 드님과 아들에게 보여주시디어 더욱 착하다착한 미소를 보여주셨는데, 그 미소만큼이나 미 음에도 신장하기 그치않는 분. 중소기업영 수송차원센터에서 피곤근무를 하고 계신 관계로 일이 쟁겨드러지 못할 짝이 항상 죄송스럽다.

3 KISTI의 '한기법' 으로 불리는 카디리 강형욱 박사님. 피터싱 워로 우뻑 솟아있는 박사님의 열공을 보면, 편지 기분이 좋아진다. 부근하고 친근한 영집 어처에 같은 인상이지만, 실제 르는 사색과 독서를 즐기는 진정한 코네티드도! 서비스시업 코너터링과 통합 Help Desk 체제를 구축하고 계시다.

4 미끈 몸태와 어울리져 양계 단영 스포츠맨이다. 테니스, 볼링, 축구 등등 디치는 대로 워든 즐힌다. 영이 날려나 일도 바빠 수있어, 일평 '박사바스콘' 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기관 홍보 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오면, 애디트 총알같이 달려 나간다. 게다가 잔정이 많이 심함을 워 치다해라치져 일일이 다 해주는 좋은 남자!!



김찬호



이인욱



이해훈



박경석



이수연



오상현

5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비고 공룡이 '주우'!! 40대라곤 믿기 어려운 만큼 동안이지만, 입을 열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완만한 말투와 50%만 믿으면 딱 적당한 가장된 언행 등등.. 시간 혼을 쏙 빼놓는 스케쥴(?)의 대명사다. 그러나 직행없이 술을 즐겼나니은 이이대어의 스미트화는 모든 이로 하여금 장난을 지어내게 하는 '독특함' 넘치다.

6 처음 보면 '조목' 같다. 그러나 며칠만 만나면 '오빠' 같다. 깜짝 놀랄 만큼 단정한 품위(소문이 따르면 거북이 등껍질이란 얘기도 있다)은 그냥 공으로 있는 게 아니다. 소래 소문 없이 상황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고 해결까지 해 준다. '장대' 라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여비 그제도 보여줬는지, 6.25 시범이 다시 납다 한들 잘대 물어버릴 일은 없을 듯 하다.

7 요즘 얼굴에서 피소가 가시질 않는다. 9월쯤 이미 이배가 되기 때문이리는데, 메신저 ID가 '선부사님' 일 만큼 무시하지한 예체가이기도 하다. 소년 같은 해맑은 웃음과 장난기로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커이운 남자. 으러러할까 help desk를 담당하고 있다.

8 리의 수장을 행여하는 '열정맨'. 항상 무표정으로 일관하지만 승산을 한 달 일로 이내의 정확 한 통칙인 얼굴 가득 활기웃음이 피어난다. 인사환의 '시림이 곳보다 이쁜다위' 를 즐겨 부르며, 자기 자신 역시 곳보다 이쁜다운 사람이 되기를 비란다는 남자. KSP(KST) 정보센터(성리제) 시스템 운영과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 이 글의 필자이며 우리 삶의 총알질. (남을 도와 위하면) 산소 같은 여자, 또는 정보화시대 에 맞는 결속한 능력의 보유자다. (무척 착숙려움...) 상냥한 목소 하리은 온 삶의 남자적 행동을 짐작 못하게 한다고 자부(?) 하는 꽃이내이며,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의 정책수립 과 브레딩자료를 맡고 있다.

10 자칭 '꽃미남'이다. 사진 잘 나히세 아세 장가갈 수 있을 거라며 이번 학재에 심정인 편승을 보이고 있다. 다소 화려한(?) 얼굴과는 달리 마음씨는 어쩌니 부드럽고 세심한지.. 거기가 순수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비 이유를 갖고 있어서, 이미 꽃 좋은 산부장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 KSP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